

## 20층 비선형 벤치마크 빌딩에 대한 자기유변유체 감쇠기의 최적위치 결정

### Optimal placement of MR dampers for 20-story nonlinear benchmark building

장종우\* · 조상원\*\* · 윤우현\*\*\* · 이인원\*\*\*\*

Jang, Jong Woo · Cho, Sang Won · Yoon, Woo Hyun · Lee, In Won

#### 1. 서 론

빌딩이나 교량 구조물에 있어서 감쇠기의 최적 위치를 결정하는 목적은 적은 개수의 감쇠기를 사용하여 구조물의 진동 제어 효과를 최대로 하려는 데 있다. 수동 제어에서 널리 쓰이는 선형 점성감쇠기의 경우 SSA나 SSSA 등 감쇠기의 최적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많이 제안되었다. 선형 점성감쇠기는 구조물의 응답이 큰 위치에 설치할수록 더 큰 성능을 발휘할 것이다. SSSA는 구조물의 응답을 측정하는 지수를 제안한 다음 감쇠기의 개수가 증가할 때마나 측정된 지수의 값이 가장 큰 위치에 감쇠기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설치해 가는 방법이다.

자기유변유체 감쇠기의 경우 선형 점성감쇠기보다 제어 알고리즘이 훨씬 복잡하며 아직까지 검증되고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최적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거의 없다. 여기서는 선형 점성감쇠기와 같은 착상으로 자기유변유체 감쇠기의 최적위치를 결정하고자 한다.

#### 2. 예제 구조물과 자기유변유체 감쇠기

##### 2.1 예제 구조물

여기에서 사용되는 빌딩 구조물은 20층 비선형 벤치마크 빌딩이다 (Otori et al. 2000, 2002). 빌딩의 규모는 가로 30.48 m, 세로 36.58 m, 높이 80.77 m이며 지하 2층까지 포함한다. 남북 방향으로는 다섯 구획, 동서 방향으로는 여섯 구획으로 나누어 진다.

구조물의 감쇠 행렬은 Rayleigh 행렬로 가정하였으며 강한 지진 하중을 받는 동안에는 비선형 거동을 한다. 이러한 비선형 거동은 Bilinear 이력현상 모델로 표현하였다 (Otori et al. 2000, 2002).

##### 2.2 자기유변유체 감쇠기

자기유변유체 감쇠기의 거동은 Bouc-Wen 모델이 포함된 그림 1와 같이 나타난다 (Yi et al. 1999, 2001; Dyke et al. 1999; Jansen and Dyke 2000). 감쇠기에 의해 발휘되는 제어력은 식 (2)에서 (5)을 사용하여 계수를 구한 다음 식 (1)과 같이 계산한다. 식 (2)부터 (5)에 사용되는 감쇠기의 물성치는 표 1과 같다. 자기유변유체 감쇠기의 제어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Passive-On과 Passive-Off 모드만을 사용한다.

\* 한국과학기술원 건설 및 환경공학과 석사과정 · 042-869-5658 (E-mail: ziezzone2000@hotmail.com)  
 \*\* 한국과학기술원 건설 및 환경공학과 박사과정 · 공학석사 · 042-869-5658(E-mail: s.w.cho@webmail.kaist.ac.kr)  
 \*\*\* 정회원 · 경원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부교수 · 공학박사 · 031-750-5560(E-mail: ywh@mail.kyungwon.ac.kr)  
 \*\*\*\* 정회원 · 한국과학기술원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 · 공학박사 · 042-869-3618(E-mail: iwlee@kaist.ac.kr)

$$f = c_0 \dot{x} + \alpha z \tag{1}$$

$$\dot{z} = -\gamma |\dot{x}| |z|^{n-1} - \beta \dot{x} |z|^n + A \dot{x} \tag{2}$$

$$\alpha = \alpha(u) = \alpha_a + \alpha_b u \tag{3}$$

$$c_0 = c_0(u) = c_{0a} + c_{0b} u \tag{4}$$

$$\dot{u} = -\eta(u - v) \tag{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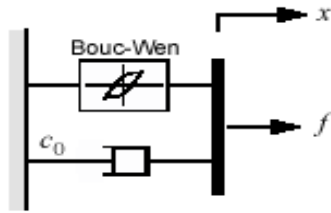


그림 1 자기유변유체 감쇠기의 거동 모델

기호	크기	기호	크기
$\alpha_a$	$1.0872 \times 10^5 N/cm$	$\alpha_b$	$4.9616 \times 10^5 N/(cm \cdot V)$
$c_{0a}$	$4.40 N \cdot sec/cm$	$c_{0b}$	$44.0 N \cdot sec/(cm \cdot V)$
$n$	1	$A$	1.2
$\gamma$	$3 cm^{-1}$	$\beta$	$3 cm^{-1}$
$\eta$	$50 sec^{-1}$		

표 1 자기유변유체 감쇠기의 물성치

### 3. 자기유변유체 감쇠기의 최적위치 결정

SSSA에서 선형 점성감쇠기의 최적 위치를 결정하는 지수는 각 층의 최대 층간 변위와 층간 상대속도에 일정한 가중치를 곱한 다음 더한 것이다 (T.T.Soong 2002). 따라서 감쇠기의 개수가 증가할 때마다 계산한 지수의 값이 가장 큰 층에 다음 감쇠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하지만 각 응답의 가중치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자기유변유체 감쇠기의 최적위치는 결정할 때에는 각 층의 절대 가속도에도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를 구하려고 한다. 각 응답의 가중치를 결정하기 전에 층간 변위, 층간 상대속도와 각 층의 절대가속도 중 하나만을 지수로 사용하여 최적 위치를 구한 다음 각 경우의 성능을 평가한다.

### 4. 해석 결과

구조물에 가하는 하중은 여러 가지 지진하중이다. 자기유변유체 감쇠기의 제어는 Passive-On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층간 변위와 층간 상대속도 중 하나를 지수로 사용할 경우 각 지진하중에 대한 감쇠기의 최적 위치는 그림 2와 그림 3과 같다. El Centro나 Hachinohe 지진의 경우는 최적위치 분포가 서로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지진인 Northridge나 Kobe 지진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네 지진 모두 1층에 몇 개 설치하고 상부층들에 설치한 다음 전 층에 걸쳐 골고루 설치되는 순서를 보인다. 층간 상대속도를 지수로 사용하여도 감쇠기가 설치되는 순서가 층간 변위와 다를 뿐 마찬가지이다.

표 2는 층간 변위와 층간 상대속도를 최적위치 결정 지수로 사용할 경우와 벤치마크 문제에서의 제어 성능을 비교한 표이다. 벤치마크 문제에서는 1층에 네 개, 2, 3층에 두 개, 나머지 층에는 한 개씩 총 25개의 감쇠기를 설치하였다 (Yoshida and Dyke 2002). 지진의 규모가 작은 El Centro나 Hachinohe 지진의 경우에는 층간 변위를 지수로 사용한 경우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 지진의 규모가 큰 Northridge나 Kobe 지진에서는 층간 변위와 층간 상대속도를 사용한 경우가 골고루 좋은 성능을 보인다. 여기서 J1은 최대 층간변위, J2는 최대 절대가속도를, 그리고 J3는 최대 저면전단력을 나타내는 평가 지수이다.

하지만 각 층의 절대 가속도를 최적위치 결정의 지수로 사용하면 특정한 층에만 계속 설치가 된다. 또한 평가 지수들도 감쇠기를 늘리는 처음에는 줄어들다가도 계속 증가한다. 그림 4는 Kobe 지진의 경우 감쇠기가 증가할수록 변하는 평가 지수의 그래프이다. 표 3에서 보듯이 Kobe 지진에서는 감쇠기를 처음에는 12층에 세 개, 그 이후에는 계속 11층에만 설치가 된다. 따라서 각 층의 절대 가속도를 최적위치 결정의 지수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는 다른 지진하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Passive-Off 알고리즘으로 제어할 경우 감쇠기 하나만의 제어 효과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특정한 한 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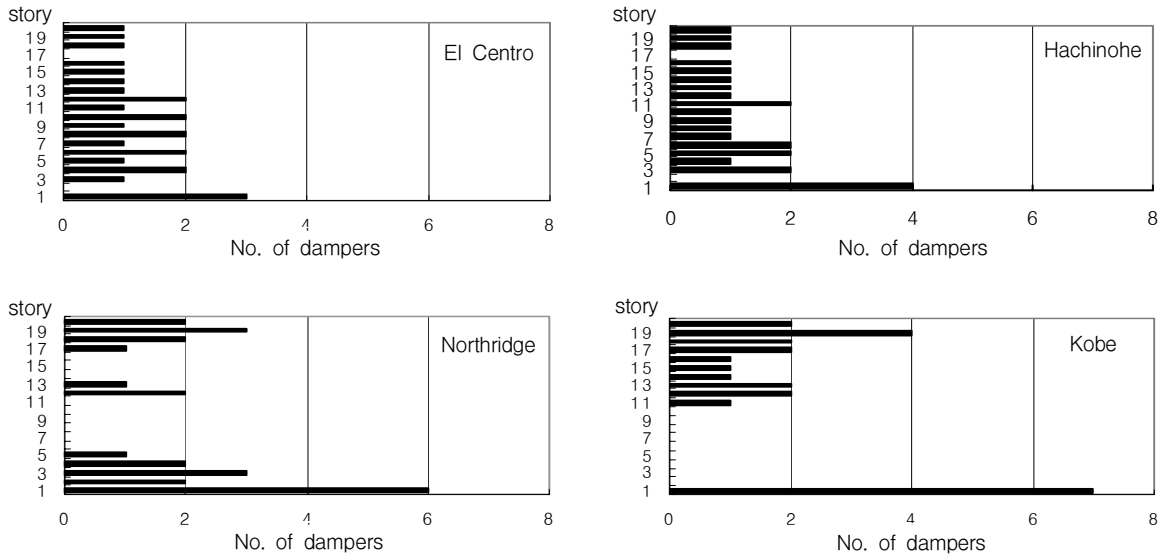


그림 2 층간 변위를 지수로 사용할 경우 25개 감쇠기의 최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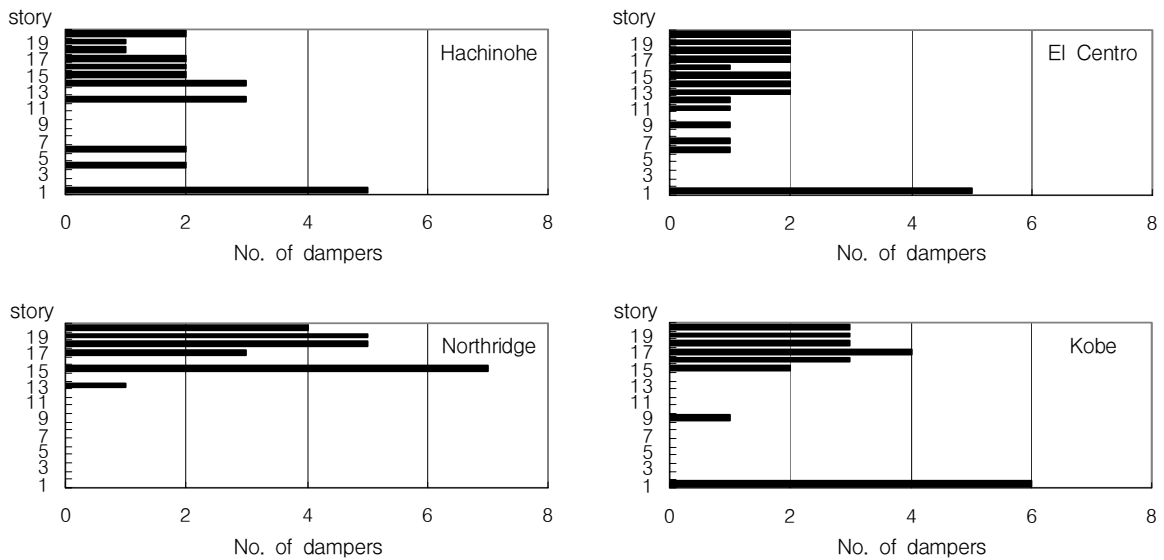


그림 3 층간 상대속도를 지수로 사용할 경우 25개 감쇠기의 최적 위치

표 2 서로 다른 감쇠기의 위치에 따른 평가지수의 비교

	층간 변위	층간 상대속도	벤치마크 문제
J1	0.569	0.739	0.612
J2	0.550	0.735	0.599
J3	0.824	0.903	0.976

(a) El Centro 지진

	층간 변위	층간 상대속도	벤치마크 문제
J1	0.635	0.870	0.683
J2	0.844	0.871	0.845
J3	1.012	1.223	0.995

(b) Hachinohe 지진

	층간 변위	층간 상대속도	벤치마크 문제
J1	0.677	0.899	0.766
J2	1.276	1.500	1.132
J3	1.134	0.985	1.133

(c) Northridge 지진

	층간 변위	층간 상대속도	벤치마크 문제
J1	0.519	0.563	0.700
J2	0.937	0.843	1.062
J3	1.230	1.063	1.213

(d) Kobe 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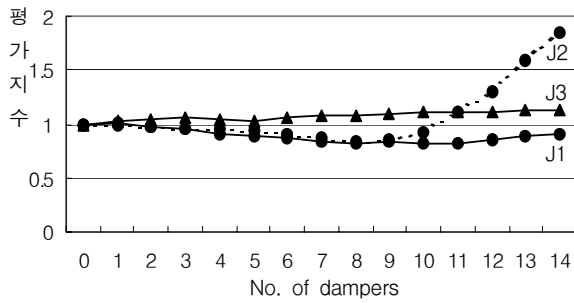


그림 4 각 층의 절대 가속도를 지수로 할 경우 평가지수의 변화 (Kobe 지진)

감쇠기의 설치 순서 (숫자는 설치된 층을 의미함)

12 12 12 11 11 11 11 11 11 11 11 11 ……

표 3 각 층의 절대 가속도를 지수로 할 경우 감쇠기의 설치 순서 (Kobe 지진)

	층간 변위	층간 상대속도	벤치마크 문제
J1	0.978	0.861	0.965
J2	0.993	0.953	0.975
J3	0.981	0.906	0.962

(a) El Centro 지진

	층간 변위	층간 상대속도	벤치마크 문제
J1	0.943	0.945	0.999
J2	1.005	0.990	1.026
J3	1.010	0.993	1.004

(b) Kobe 지진

표 4 Passive-Off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감쇠기 위치에 따른 평가 지수

에만 계속 설치된다. 층간 변위를 지수로 사용하면 El Centro 지진의 경우 1층에만, Kobe 지진의 경우 19층에만 감쇠기가 설치된다. 층간 상대속도를 지수로 사용하면 두 지진 모두 20층에만 설치가 된다. 평가지수를 비교해 보면 1층에만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벤치마크 문제에서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 (표 4). 하지만 특정한 한 층에만 감쇠기를 설치하는 결과를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 5. 결 론

Passive-on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규모가 작은 El Centro와 Hachinohe 지진에서는 층간 변위만을 평가 지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성능이 가장 좋고, 규모가 큰 Northridge와 Kobe 지진에서는 층간 변위나 층간 상대속도를 지수로 한 경우가 골고루 성능이 좋았다. 해석 결과 지진에 따라 최적위치의 분포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는 지진의 주파수 특성보다는 강도의 차이 때문이다. 한 지역에 발생하는 지진의 강도는 역사 지진의 자료나 지반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최적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층의 절대 가속도를 최적위치 결정 지수로 사용하면 특정한 한 층에만 감쇠기가 분포되고 평가 지수도 오히려 증가하므로 적절치 않다. Passive-Off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에도 한 층에만 감쇠기가 설치되므로 비록 벤치마크 문제보다 성능이 좋을지라도 실제로 적용할 수 없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00년도 과학기술부의 국가지정연구실 지원(과제번호:2000-N-NL-01-C-251)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참고 문헌

1. Osamu Yoshida and Shirley J. Dyke (2002) Seismic control of a nonlinear benchmark building using smart dampers, *Journal of Engineering Mechanics: Special Issue on Structural Control Benchmark Problems*, April 2002.
2. D. Lopez Garcia and T. T. Soong (2002) Efficiency of a simple approach to damper allocation in MDOF structures, *Journal of Strctual Control*, Vol. 9 No. 1, pp. 19-30.